

제1절 울진의 성씨

조선 전기 각 군현의 성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울진의 토성(土姓)은 임(林)·장(張)·정(鄭)·방(房)·유(劉)씨가 있었고, 속성(屬姓)으로는 영천(榮川)에서 이주한 민(閔)씨가 있었다. 평해의 토성으로는 황(黃)·방(房)·수(水)씨가 있고, 백성성(百姓姓)으로 엽(葉)·하(河)·신(申)·김(金)씨가 있었으며, 외부에서 이주한 속성(屬性)으로 김(金)·이(李)·박(朴)·정(鄭)씨가 있었다.

15세기 후반의 『동국여지승람』(1481)과 16세기 초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 의하면 울진의 성씨로는 임(林)·장(長)·정(鄭)·방(方)·유(劉)씨와 영천(榮川)을 본관으로 하는 민(閔)씨가 있었다. 평해에는 황(黃)·손(孫)·방(房)·수(水)·구(丘)씨가 있고, 엽(葉)·하(河)·신(申)·김(金)은 촌성(村姓)이며, 김(金)·이(李)·박(朴)·정(鄭)은 속성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별 문중의 자료나 족보를 살펴보면 이 외에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울진 지역으로 낙향한 사족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성씨가 이미 입향(入鄉)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은 아마도 대표적인 성씨만으로 소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성(土姓)은 신라 말·고려 초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조선 초기까지 울진과 평해 일대의 각 지역에 혈연에 기초한 다수의 부락을 형성하면서 그 지역의 지배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재경관인(在京官人)과 재지세력(在地勢力)으로 분화하였고, 각 읍의 실질적 지배 세력으로서 군현의 향리를 독점하였다. 울진군에는 울진 장씨(蔚珍張氏),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존재하였고, 평해에는 평해 황씨(平海黃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평해 구씨(平海丘氏) 등이 재지세력으로 존재하다가 고려 후기부터 사족(土族)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울진 지역으로 낙향하는 사족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성씨의 입향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592년(선조 35)의 임진왜란과 1636년(인조 14)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병란을 피해 많은 사족이 입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당쟁과 세도정치 등으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으므로 생활의 적지를 찾아 입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수려한 산수(山水)를 찾아 은거하려는 사족들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처럼 울진 지역은 피난처나 은둔처로서는 물론이고 비옥한 토지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생활의 적지로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울진지역에 세거한 성씨는 52개 성씨, 106개 본관인데, 그 중에서 울진과 평해를 본관으로 하는 관적(貫籍) 성씨가 7개이고, 세거 성씨가 100개이다. 관적 성씨에는 평해 구씨(平海丘氏), 울진 방씨(蔚珍方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평해 오씨(平海吳氏), 울진 임씨(蔚珍林

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등이 있다. 세거 성씨로는 진주 강씨(晋州姜氏), 제주 고씨(濟州高氏), 현풍 곽씨(玄風郭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봉화 금씨(奉化琴氏) 등 약 100여 개가 있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지역별로 다양한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대도시로 이주하기도 하고, 생활 거처에 따라 유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집성촌이 많이 해체되었다.

제2절 관적(貫籍) 성씨

1. 평해 구씨(平海丘氏)

- 구대림(丘大林)

당상서(唐尙書)로 황학사(黃學士)와 같은 배[同舟]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평해읍 월송(月松) 북안(北岸)에 살다가 영양(英陽) 서천(舒川)으로 옮겨갔다. 현재 울진에는 후손이 한 가구[一家口]도 없다.

2. 울진 방씨(蔚珍方氏)

울진 방씨의 시조(始祖)인 방지(方智)는 온양 방씨(溫陽方氏)의 시조이기도 한데, 울진 방씨는 여기에서 분파된 것으로 보인다. 방지는 원래 중국 당(唐)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669년(문무왕 9) 나당동맹(羅唐同盟)과 관련되어 사신으로 신라에 건너왔다. 이후 설총(薛聰)과 함께 구경(九經)의 회통(會統)을 국역하였고, 장씨(張氏)와 혼인하여 가유현(嘉猷縣)²에 정착하였다.

방지의 후손인 방운(方雲)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를 정벌하고 성종 대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큰 공을 세워 벼슬이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르렀으며, 993년(성종 12) 거란의 1차 침입 때 큰 공을 세워 온수군(溫水君)에 봉해지고 온양(溫陽)·신창(新昌)·아산(牙山)의 3읍을 식읍(食邑)으로 하사받았으므로 방운을 1세조로 하고 온양을 관향으로 삼았다.

2. 가유현(嘉猷縣)은 경상북도 상주시(尙州市)의 옛 이름이다.